

교육의 물거품 현상과 한국병

하 치 근

(東亞大 國語國文學科)

수심이 깊은 물의 도도한 흐름은, 내면의 복잡다기한 잔상을 여과시켜 항구여일한 절서를 드러내지만, 소용돌이가 심한 여울목의 물거품은 변화무쌍한 잔상들 때문에 어지럽기까지 하다. 국조 단군의 건국 이념이자 우리의 교육 이념이기도 한 홍익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은 수심이 깊은 물의 흐름이지 여울목의 물거품이 아님을 누가 모르랴? 그러나 현실적인 시야는 물거품만여 보이고 방향을 감지할 수 있는 원류를 찾기 어려우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오늘 우리의 교육 현장에는 이론과 실천으로 무장한 교육행정가나 교육전문가가 교육정책의 입안이나 운용, 실천에 이르기까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꾸준한 제도 수정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거품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나는 이런 현상의 근원적인 요인이 우리 교육의 원류와 지류가 미분화 상태에 있고 원류가 지류의 물거품을 여과할 수 있는 기능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다운 교육의 원류가 있음직한데도 이것을 찾으려는 노력보다 외국의 선진 이론 수용에 심취한 결과 남은 것은 소용돌이뿐이다.

또한 대학가에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오늘까지 십수 년이 흘렀건만, 현재의 결과가 목적하는 바에 이르렀는지도 사려깊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뜻 있는 분들의 중간평가 결과를 두 가지로 집약해 보면, 한쪽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 교권의 실증과 교수 연구 의욕의 침체,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불협화음 등이 걸림돌이 되었으므로 그 역기능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다른 한쪽은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대학들이 정상 궤도에 올랐으므로 부분적으로 나타난 역기능적 요소들 빌미로 하여 과거에로의 회귀나 안일무사주의로 흐르는 보수화는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상과 같은 양쪽의 주장을 대립적으로 보아야 하는가, 상호보완 관계로 보아야 하는가가 앞으로 남은 자주화와 민주화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골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양극적인 판단에 의하면 한쪽은 보수화 성향, 또 한쪽은 진보화의 성향으로 가르는 대립되는 주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자율화 과정의 결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 있음을 인정하는 공동 바탕 위에서, 그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나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나에 따라 생긴 차이로 본다면, 결코 양쪽의 주장은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며 상보적인 구도이다. 지금까지의 쟁점을 바탕으로 하여 지적하고 싶은 바는, 십수 년간 자율화의 과정 속에 나타난 대부분의 시행착오들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이면서도 드러난 현상을 양극적으로 판단하고 나아가서는 유유상종하는 분위기 조성에서 불협화음의 강도가 높아졌다고 본다.

대학 구성원이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대학사회 구현을 위하여 견해를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본질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이 팽배한 분위기 조성은 오히려 자율화의 걸림돌이 되고 교육의 불거품화 현상을 부추기는 결과가 된다.

요즈음 문민정부의 출범 이후 고질적인 한국병 치유에 대한 방법이 자주 논의되고 있다. 과연 한국병의 증상은 어떠하며 그 발병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결함은 보지 못하고 남의 결함만을 확대시켜 보며, 자기중심적인 일방지향성으로 인하여 남의 불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증상이다. 현재 이 증상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번져가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런데 이 증상의 발병 원인이 한정적인 영역이 아니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검진의 절차나 치유의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고 본다. 흔히들 부모가 노후에 자식에게 편한 대접을 받으려면 학교 교육을 많이 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대학교육을 받은 자식보다는 초·중등교육을 받은 자식이 상대적으로 더 효자라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고등교육의 효용가치가 불효자를 만드는 무용가치(?)로 바뀐 셈이다.

교수는 학생으로 하여금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는 근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치관의 갈등을 극복하게 하고 확고한 목적의식과 명확한 방향 감각을 갖도록 하여 인간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하여 진취적인 가치관을 수립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런데 가치관의 정립은 교수의 지도역량만이 아니고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무용가치가 효용가치를 지배하는 현실적인 상황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느끼고 대처해야 하겠다. 스승은 없고 선생만이 있는 병적이고 비극적인 우리의 실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한 뉘앙스를 남기며 교육자를 괴롭히는 도깨비다. 밤새껏 도깨비불에 홀려 다니다 보면 다음 날 남는 것은 만신창이가 된 허황된 모습뿐이리니 원기를 회복하는 길만이 치유의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기(元氣)는 매때로 병세를 호전시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한다.

활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힘의 본질이 되는 원기는 사람에게 따라서 쇠약하기도 왕성하기도 한 정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氣)는 결코 다다익선일 수 없다고 본다. 그런데도 자식의 기를 살리려는 부모의 욕심은 가끔 도를 넘어 맹목적이기까지 하다. 자식이 그릇된 언행을 해서 꾸중을 듣거나 처벌을 받은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왜, 남의 아이 기를 죽이느냐?”고 거친 항의를 해온다. 얼마 전 어느 학교의 여교사가 학생의 체벌 문제로 자살을 했고 어머니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아들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격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바람직한 기는 살리되, 되지 못한 기는 깎아야 바른 인격의 바탕이 조성되는 것인데도 자식의 기를 살리려는 맹목적인 부모의 모습에서 씁쓸한 뒷맛을 느낄 때가 가끔 있다. 바로 여기에서 참과 거짓,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뿌리내리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따라서 순도(純度)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기만을 고집하는 일이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그르치는 한국병 발병의 원인이 된다. 자식의 기를 여과하고 나쁜 기는 잘라내는 부모의 양식도 어두운 교육현실을 바로 잡고 한국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사실판단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된다.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 있다면 이기주의는 발 붙이지 못한다. 그런데 사실판단의 역량은 판단기준에 좌우되고, 판단기준은 가정적 사회적 국가적 요인에 의해서 결

정된다.

요즘을 사정(司正)의 한파가 매섭게 몰아치고 고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후덥지근한 마음에 청량감을 안겨주어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울곡 비리’, ‘평화의 뱀 비리’ 등 수없는 비리가 노출될 때마다 과거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생생한 목소리의 주인공들이 두 얼굴을 가진 인물로 확대되어 보이는 내 증상도 혹시 한국병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는 때가 가끔 있다. 비리인가, 아닌가 하는 진실이야 뒷날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이 사회의 실상들을 과연 학생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한국병의 감염 여부를 검진하는 주요 관건이 되기에 더욱 초조해진다. 원래 감염은 자신의 책임에 의해서도 환경적인 책임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이 장차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정신을 함양함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면 교수는 학습 현장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 현재의 규범적인 인물을 들어 인품, 덕망, 업적 등을 소상히 소개하고 인격적인 감화를 받도록 해야만 그 목적을 실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감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평가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교수에 대한 신뢰성은 무엇이 되며, 민족혼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 정립은 어떻게 되겠는가?

평범한 일상사는 관절이나 여건에 따라 본질 해석에 다소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민족의 정통성을 찾고 진정한 민족 정신을 심어주어야 할 교육의 장에서 참과 거짓이 뒤바뀌는 혼란이 초래된다면 ‘수박 겉핥기’식 교육의 탈을 영영 벗어 던지지 못할 것이다. 지금까지 노출된 비리가 비리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만에 하나라도 비리가 비리로 밝혀진다면, 교육현장에 나타날 반작용은 심각한 파장을 몰고 오리라는 염려 속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속담을 떠올린다.

포장이 달콤하게 된 길가를 걸으며 시침이나 구침의 행정력에 희망과 기대를 갖는다. 그런데 포장된 지 얼마 안 된 도로가 또 파헤쳐진다. 물어 보면 송수관 설치 공사 때문이라고 한다. 또 며칠 있으면 가스관 설치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진다. 시민의 교통이나 경제적 부담보다는 시행 관청의 편의 위주에 의한 결과로 볼 때, 이것도 분명 한국병에 걸려 있는 분들의 발상이거나 하고 불평을 토로하는 적이 가끔 있다. 학습 현장에서 ‘일사불란’, ‘상호협조’, ‘삼위일체’, ‘근검·절약’의 자세를 누누이 강조해 온 교수의 입장에서, 이런 현상을 보고 학생이 질문해 왔을 때, 어떤 현명한 대답을 해주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교육 활동이 가정이나 사회, 국가와의 상호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상식이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가정은 가정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제각기 지향성을 달리하고 있으니 교육의 물거품 현상은 끊이지 않고 한국병의 감염속도가 빨라지고 범위가 넓어져 가고 있다.

현상을 긍정과 부정의 양면단으로 판단하는 획일주의식 사고 아래에서는 만족과 불만의 대립구조가 형성될 뿐이다. 그런데 현상의 본질 속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유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만족과 불만이 중화되기도 한다. 이제부터는 교육현장에서 드러난 갖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의욕과 자세가 우리에게 절실한 메이다. 현재까지의 진단 결과 학교, 가정, 사회, 국가가 교육의 물거품 현상과 한국병을 발병시킨 요인이 되었다는 바탕 위에서 슬기롭게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논의 과정에서 또 다시 책임회피식의 억지 주장,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 등은 당연히 금기시되어야 한다. 오로지 발병과 감염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회복의 강한 신념을 가질 때 우리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교육의 악순환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